

“자비사상은 지구촌문화 구심체”

한민족철학자대회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주제

‘한민족철학자대회 1995’가 지난 17일~19일까지 미·중·러·일 등 해외동포철학자들과 국내 철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주제로 한민족은 물론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도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인간다운 삶의 진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6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박성배 박이문 정화일 한자경 김영호교수 등이 불교관련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지구촌 시대의 민족문화”란 주제하에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뉴욕주립대 박성배교수는 “근대화나 세계화를 그대로 서양화로 생각하는 병폐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족문화와 서양문화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별상(別相: 개별성) 속에서 총상(總相: 총체성)을 본다’는 화엄학적인 안목에서 보면 민족문화가 없는 세계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민족문화가 살아야 세계문화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설명. 개체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민족문화를 살릴 수 있으며, 민족문화가 살아야 세계문화도 산다는 박교수는 “윤희 그르든 누구나 포용하는 자비가 지구촌 문화의 체(體)가 되고 그러



◇박이문교수



◇박성배교수

박이문교수 미래 가치는 과학과 종교 2분법 지양 김영호교수 함석헌, 보살정신 구현한 삶은 불교도

한 체의 용(用)으로서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질서·이상·합리·보편 등등이 각기 많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 지구촌 문화의 본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과학, 미래”란 주제 아래 ‘자연과 인간: 포스트모던의 지향’을 발표한 미 모라비언대 정화일교수는 다양한 탈근대적 탈식민지적 이론들의 성과들을 총망라하면서 불교

사 나타나는 종교적 열정을 분석, ‘과학과 종교’, ‘근대와 탈근대’라는 2분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분과별로 진행된 자유발표에서 계명대 한자경교수는 ‘물질 현상학의 선형적 주관성과 불교유식철학의 아뢰아식의 비교’를 통해 객관주의적 자연과학 풍토에서 성장한 현상학을 엄밀한 과학과 대면한 적이 없었던 유식불교와의 비교를

나 도교 유교 등 동아시아 사상을 통한 새로운 종합을 시도했다.

또한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가치’란 주제하에 ‘종교와 미래의 삶’을 발표한 포항공대 박이문교수는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세계 각 지역에

시도해 관심을 끌었다. 한교수는 현상학에서의 구성과 유식에서의 식전변(識轉變)이 둘 다 세계의 객관성을 자아의 주관성에 의해 설명되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지만, 유식은 아뢰아식이 전변하는 식(識)인 동시에 그 전변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전변과정 자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성된 세계로부터의 선형적 자아의 자유를 말하는 현상학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함석헌의 종교사상을 기독교 유교 불교 인도종교로 분석한 인화대 김영호교수는 ‘함석헌과 인도종교’에서 ‘함석헌은 불교신앙인은 아닐지라도 타고난 덕망의 불교도요, 보살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보살정신의 구현에 노력한 자였다’고 규정했다. 이밖의 불교관련 논문으로는 △인도고행주의에서 본 도덕정신(김인중) △통일을 향한 차의 철학(유병덕) 등이 발표됐다.

김재경 기자

‘21세기 바른역할’ 세미나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 16일 오후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바른 자리 찾기’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김지경(정신문화연구원) 신성중(부산대) 김자관(지산전문대)교수가 불교의 당면문제와 인간성, 환경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이춘기(부산대) 박만연(동아대)교수와 구기자씨(부산환경연합 사무국장)가 참석했다.

유네스코에 ‘유산’ 신청 ‘경주보존’ 17개 학회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와 고고학회(회장 김병모)를 대표로 한 17개 학회 대표들은 지난 10일 오전 한양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에 경주시의 인류중요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17개 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수철도의 경주통과 철학, 경마장의 시의적절한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사원저 ‘한국 사찰의 주권’입니다.

김홍수씨 ‘원효불교사상연구’

북경대 첫 한국불교학 박사논문



◇김홍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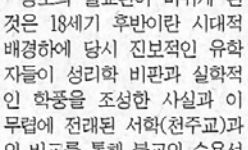
중국 북경대에서 원효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최근 북경대 중국철학계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중국 조선쪽 출신 김홍수씨의 ‘원효佛學사상연구’는 동아시아 불교와 사회발전의 전반적인 “화쟁, 한국불교 근본이념 갈등극복·평화의 길 제시”를 주제로 하고 있다. 김씨는 “화쟁(和諍)을 특징으로 하는 원효사상은 한국불교의 근본이념이며 사유방법일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화쟁사상은 갈등과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대립을 초월,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원효는 <대승기

신론>을 위경(僞經)으로 인정하면서 불교사상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중관, 유식, 유심삼계(唯心三界)사상을 대승불교의 중도공(中道空)의 근본입장에서 회통시키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화쟁사상은 원효의 교학연구와 종교적 실천에 견실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화쟁사상의 연원과 기본특징을 개괄한 김씨는 원효의 화쟁을 ‘대승불교철학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라고 규정했다. 무명(無明: 다무지 암음)을 극복으로 하는 화쟁사상은 이상과 현실, 목적과 수단이 고도로 통일된 세계관이며 방법론이란 설명이다. 심사를 맡았던 중국인민대학의 方立天교수는 “원효를 통해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대승불교사상의 전파·발전의 황금통로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격찬했으며, 石嶽교수도 “인도 불교와의 관계만을 중시해 온 중국학계에 새로운 연구시각과 분야를 제시해 일본·중국불교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정확한 연구방향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화제의 논문 이장열씨 ‘정조의 불교관...’

용주사 창건·호불관 배경 조명



◇이장열씨

정조의 불교관이 바뀌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란 시대적 배경하에 당시 진보적인 유학자들이 성리학 비판과 실학적인 학풍을 조성한 사실과 이 무렵에 전래된 서학(천주교)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이장열씨가 고려대 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를 문으로 제출한 ‘정조의 불교관 변화와 불교정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제기된 것. 이씨는 “대 유학자이기도 한 정조가 용주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과 호국고승의 존승(尊崇)사업과 중요사찰 중수에 힘을 쓰는 등 호불관(好佛觀)으로 바뀐 배경이 궁금했다”며 논문을 쓴 동기를 밝혔다. 이씨는 논문에서 “정조의 불교관이 바뀌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며 “당시 진보적인 유학자들이 성리학 비판과 실학적인 학풍을 조성한 사실과 이 무렵에 전래된 서학(천주교)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조는 세사때 용동궁(龍洞宮)의 미황사(美皇寺)를 철거했고 즉위(1777년)초에는 원당의 학파를 지지했으며, 재위 2년에는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했다. 또 4년에 천군 황제가 하사한 함금불상을 더러운 물건이라며 공전시켜 버리고 공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러나 재위 9년에 남북한산성의 의승번전(義僧番錢: 番錢의 징수로 승려들에게 잡역을 면해 주는 제도)을 반감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부터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고, 재위 12년후부터 휴정 등 호국고승들의 존승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였다. 조선 중·후기 불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이 논문은 역사학계로부터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박사급 이상이 실릴 수 있는 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생활 곧 참선’ 참뜻 알고 싶어요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열려 남들이 기질 않습니다. 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지정구·경기 안양시 관양동)

자전거를 타고 오며가며 사고난 것들 여러번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으레 운전수끼리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비를 벌입니다. 틀이 받쳐도 운전수 탓 박아도 운전수 탓이지 자동차보고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언행 일체도 몸통이 탓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운전수가 알아서 하게되거나 일체를 그 운전수에게 맡기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주·좌·와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재자인가요? 쉽게 ‘내가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내가 나를 만들었을까요?

믿음의 생활,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믿음을 그것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강한 믿음의 길이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참나에도 귀명하는 길이요 내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죽는 길이니 행위와가 그대로 참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리 틀고 앉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원인을 병에 걸려...

제 아내가 두서너달 전부터 어지럼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검사도 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치료의 길은 없을까요? (전삼팔·서울 서초구 잠원동)

처사님이 모르는 길 내가 어찌 안다? 다만 이것만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체는 내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병고역안이 어떤 것은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편의를 받습니다. 불광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금강경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대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유학선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죽고 사는 것도 그 내가 할까요? 또 이 세상 일체 만물이 나고 죽는 것은 어떻게? 물론 일상생활 속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나, 의식으로서의 나, 또는 인격으로서의 나 아닌 참 나, 나의 근본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전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처사님이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진정한 나인가를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에서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물이 돌아가는 것 그것은 처사님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나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것을 싹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본래 공이지만 그렇더라도 일거일동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겠거든 일체를 들고 내는 참 나를 믿고,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전수를 턱 믿고 돌아갈 때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행위와를 그냥 합쳐서 생활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믿지 않을 때, 생활이 참선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면 그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일체를 들고 낸다는 굳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행위와 하나하나에서 나라는 관념이 떨어지고 생명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내가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성으로 오고 어떤 것은 업보성으로, 또 어떤 것은 영계성 등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병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부처를 의면하고 타력에 의지해 무얼 해달라고 빌지말라는 것입니다. 물어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심정은 압니다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오허려 진실한 믿음의 강조에 있습니다. 병원이든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아는 데다 맡겨야 하겠지요. 아는 것은 자기의 참주인입니다. 거기는 일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형성시키고 내앞에 병고역안이 있게한 그 주인공, 장본인에게 알아서 하라, 내 육신 내가 끌고 다니려면 고쳐서 써라 하고 굳게 믿고 맡겨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빌리더라도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질 때와 전전금공 할 때와는 분명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형성시킨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지켜봄 그것이 내가 일러드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 보셨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5치 : 17.5cm) 일만불 조성

(1자 : 33cm)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표 권영천 합장

한국의 문화 유산을 빛냅니다
 1. 직접 손으로 황금빛을 빚어 1380°C에서 구워낸 도자기 불상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이 없으신지요.